ORIGINAL ARTICLE

ISSN (Print) 2005-3673
ISSN (Online) 2093-758X

대한간호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5년 6월

J Korean Acad Nurs Vol.45 No.3, 397-411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

이용미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Suicide Attempts

Lee, Yong-Mi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experience of Korean college students on suicide attempts. **Methods:** Eight students participa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between September, 2011 and April, 2012. Data were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Analysis showed that the central phenomenon of suicide attemp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as 'inextricable despair'. Causal conditions were 'sense of shame by failure to achieve perfect independence' and 'a big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Contextual conditions were 'extreme situation of being cornered' and 'excessive changes in emotions'. Intervening conditions were 'important others' and 'perspectives on the worl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temporary efforts' and 'gathering up one's mind'. Consequences were 'trauma as one's own hurt', 'conflict between life and death' and 'becoming matu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attempted suicid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prevent suicide attempts by college students and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Suicide, Attempted,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살이 급증하였으며, 2012년 인구 10만명 당 29.1명이 자살하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였다[1].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의 대부분이 198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OCE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고, 20대의 자살률은 전체 사망자의 38.8%를 차지할 정도로[2] 청소년과 성인 초기의 자살률은 심각한 상태이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벗어나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때이지만 정체감의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인식의 증가, 가족, 친구 및 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분리 등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므로 인생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시기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주요어: 자살, 시도, 학생, 근거이론

*이 논문 2011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과제번호: C1007963-01-01).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2011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No. C1007963-01-01).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ong-Mi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Daehak-gil, Chuncheon 200-701, Korea
Tel: +82-33-250-8889 Fax: +82-33-259-5636 E-mail: rena@kangwon.ac.kr

Received: September 28, 2014 Revised: October 19, 2014 Accepted: April 8,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상실한 기분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낀다[4].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심리적·사회적으로 가치관을 수용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등 새로운 과제와 직면하게 되어 적응상의 문제 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5].

이와 같이 대학생이 당면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살 위험성도 높고, 때로는 성인으로서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3]. 자살시도를 한 사람은 자살생각을 반복하고,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6],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3]. 그 이유는 자살자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자살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과 같이 자살생각이나 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위험요인[5,7,8]과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요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8,9] 등 자살생각을 측정하고 자살과 관련된 특정 위험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조사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자살과 관련된 연구 대상은 주로 청소년기와 노인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10]. 또한 대학생의 자살은 대부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도 적은 편이다.

자살시도와 관련된 질적 연구는 여성의 자살시도 경험[11], 노인의 자살시도 전 경험[12]과 극복 경험[13], 자살 재시도자의 경험[14]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을 뿐이며, 정신장애인[15]이나 알코올중독자[16]의 자살시도 경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가 소수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에 대한 경험을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자살시도의 의미와 자살시도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시도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의 연구보다는 그 현상의 의미를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인간 행위의 상호관계를 중시한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의 특징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된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과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생이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자살시도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며 자살시도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살시도 과정에 대한 실체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과 그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자살시도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이들의 경험과 관련된 특성들을 확인하고자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일개 대학의 학생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의 대학생 커뮤니티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커뮤니티 가입 허락을 받은 후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과정을 공지하여 연구의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모집하여 선정하였다. 처음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10명이었으나, 그 중 한 명은 휴학 중이었으며, 한 명은 1회 면담 이후 참여자의 바쁜 일정 때문에 면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중단 의사를 밝혀 자살시도 경험을 진술하기에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4명이었으며, 이 중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4학년이 2명이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어졌다. 첫 회 면담 전에 연구자가 참여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면담 약속시간을 잡았고, 매 회 면담이 끝난 후 참여자와 상의하여 다음 면담 시간을 정하였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구실로 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동의 하에 연구실의 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벨이나 소음으로 인해 면담이 중지되지 않도록 전화를 차단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였고, 그 후에 본 연구를 위한 심층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로 시작하여 참여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 심층적인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반구조적인 질문을 추가하였다. 질문 내용은 "자살시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자살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지금은 자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이었다. 그 후 면담에서는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할 때의 심정과 자살 전의 상황 및 자살시도 후에 느끼는 감정과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 횟수는 참여자에 따라 2회에서 3회까지였으며, 1회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1, 2차 면담으로 불명확한 부분이나 불충분한 부분은 3차 면담을 통해 보충질문을 하여 확인하였고,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즉,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구하는 경험 정보가 충분히 모아져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지막 8번째 참여자와의 면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범주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생각하여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고, 면담을 진행하는 중과 면담 후에 연구 참여자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확인하면서 참여자를 배려하였다. 면담 시마다 특이하게 파악되었던 사항이나 면담 시 느꼈던 연구자의 느낌을 메모한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자료 분석 시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면담이 끝난 직후 연구 보조원이 녹음된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직접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내용을 연구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 자료는 코딩, 메모, 도식화를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Strauss와 Corbin[17]이 제시한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개방코딩, 축코딩과 선택코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개방코딩에서는 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 등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을 확인하면서 개념을 명명하였다. 축코딩에서는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하위범주를 형성하고, 추상화 단계를 거쳐 상위범주를 형성하였으며, 주요 범주들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분석단계인 선택코딩에서는 모든 범주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정교화하였으며, 모든 범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후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정, 그리고 결과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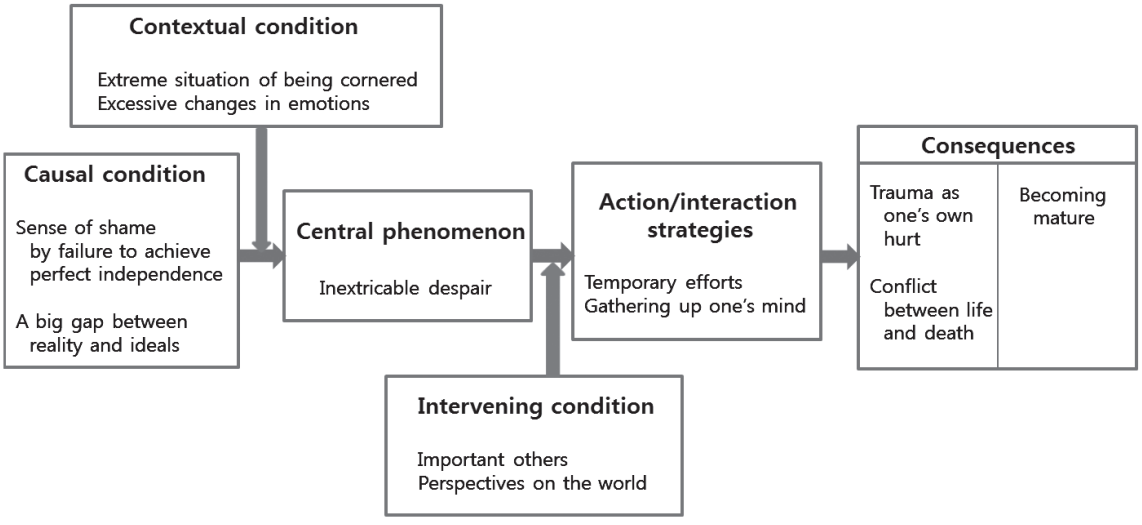

Figure 1.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suicide attempts.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8]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동료확인으로 분석 결과 및 범주의 명명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어문학 전공자 1인의 검토를 거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론적 표집방법에 의해 다양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분석을 병행하며 구하는 경험 정보가 충분히 모아져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아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서 자료 분석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면담과 자료 분석 시에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며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대학에서 정신간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수 년간 대학원 석박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간호연구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학회지에 발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었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는 K대학교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1105-AFCR-022)을 받은 후 시작되었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과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면담 시 녹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참여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매 회 면담 종료 후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자료 수집 이후에는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료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코드화하여 보관하였다. 면담이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연락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만남을 통해 참여자를 지지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개의 하위범주와 1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축코딩을 통해 나타난 중심현상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도출되었다. 대학생의 자살시도 과정의 인과적 조건은 '온전한 자립의 실패로 인한 자괴감', '꿈과 현실사이의 커다란 괴리'가 있었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궁지에 몰린 듯한 극한 상황', '극단적인 감정변화'로,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임시방편의 노력', '스스로를 추스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특성을 지닌 중재적 조건은 '중요한 타인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포함되었으며, 그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한 결과로는 '나만의 상처가 된 트라우마', '삶과 죽음 사이의 갈등', '성숙해진 나'가 해당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1. 중심현상: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

대학생의 자살시도 과정의 중심현상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현실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으로 인해 느끼는 괴로움과 절망감이 반영되어 있다. 중심현상은 '자포자기'와 '힘든 상황의 모면을 위한 현실 도피'로 세분화 되었는데, 자포자기는 깊은 절망감으로 힘든 현실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은 모든 것을 놔 버리고 포기하는 감정상태를 반영하며, 현실 도피의 경우 지금의 현실을 부딪치고 이겨 나가려 하기 보다는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디론가 도망가 영원히 쉬고 싶다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1) 자포자기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경우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이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나타냈다. 즉, 이대로 계속될 것만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잡고 있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생각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포기해버리고자 하였다.

> (자살을 시도했던 거는) 희망이 없어서. 이게 계속 될 거 같아 가지고. 계속 이, 이, 이 악순환이 계속 될 거 같고,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2)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Table 1. Relationships among Categories using Paradigm Model

Elements	Categories	Subcategories
Central phenomenon	Inextricable despair	Give-up Evasion of reality to escape from difficult situation
Causal condition	Sense of shame by failure to achieve perfect independence	Immature adult Loneliness with pains which cannot be shared
	A big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Contradiction freedom Expelled from relations Family's practical difficulties
Contextual condition	Extreme situation of being cornered	Unimproved state regardless of constant efforts Circumstance tied up by stuffy reality
	Excessive changes in emotions	Explosion of accumulated depression Losing one's reason
Intervening condition	Important others	People supporting me People turning their back on me
	Perspectives on the world	Love and consideration for important others Pessimistic view considering life as a meaningless existenc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Temporary efforts	Repeated self-injury Turning one's attention the other way
	Gathering up one's mind	Inner suppression of suicidal impulse Objectification of surroundings
Consequences	Trauma as one's own hurt	Shame imposed by oneself Irreparable damage to self-esteem Unconscious block
	Conflict between life and death	Extreme fear of death Habitually rising impulse
	Becoming mature	Hope to be strong Settled by time

뭔가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때는 의지가 없기보다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뭐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바뀔 것 같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바뀔 거 같진 않으니까. (참여자 4)

2) 힘든 상황의 모면을 위한 현실 도피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졌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앞에 놓인 힘든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러났다. 즉, 좀 더 이성적으로 지금의 현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현실 도피적인 생각과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는 진지하게 내 앞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피하고 싶었겠죠. 자살해서 죽으면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있어서 환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잠잘 때는 다 잊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하고 싶었던 거죠. 딱히 계획을 세워놓고 자살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피하려고. (참여자 4)

자살의 의미, 그냥 회피였죠, 회피. 사람이 일 열심히 하다가 여행가서 한숨 돌리듯이. 힘든데, 쉬고 싶은 데, 쉬는 걸 이제 영원히 쉬어버리는 거죠, 의미를 못 찾고. 그냥 회피이자 떠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여자 8)

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참여자를 자살시도로 이끄는 원인적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외부 상황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인 자아 통합의 어려움이나 자기 안에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1) 온전한 자립의 실패로 인한 자괴감

참여자들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족 내의 일원으로 부모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존적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대학교 입학

과 함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조율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힘들고, 남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외로움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이 심각해지면서 모든 것이 자신만의 문제인 것 같아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1)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나

참여자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변화되는 시기이고,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역할이 변화되면서 외부적인 변화와 함께 내면적으로도 수동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삶에서 여전히 의존적인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참여자들이 막연히 동경해왔던 어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어린아이 같기만 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

>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엄마가 학원가라면 학원가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학교가고,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만 살았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내가 정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되고, 남이 나한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수업 안 가고 하루종일 퍼질러 자다가, 깼는데 오후 막 해가 져가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심각성과 후회랑 절망... 내가 또 그랬구나, 절망, 자괴감,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했구나. (참여자 1)

> 난 어른이야, 난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는 안피지만 담배도 원하면 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여자친구 만들어서 내가 그 때 애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난 어른이야, 난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은 완성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랑 안 되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여자 5)

(2) 공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한 외로움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힘든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 일 없이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 감추게 되고 결국 혼자만의 문제로 끌어안고 살면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외로움을 표현했다.

> 나는 지금 힘든데 힘들다고 말 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힘들다고 꾀부릴 수도 없고, 혼자 학교 가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겠지 생각하고. 처음에 진짜 맨날 울고불고 학교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참여자 6)

> 남들은 되게 다 잘 살잖아요. 잘 행복하게. 근데 왜 저만 맨날, 부정적으로 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응이 안 되나. 그렇다고 원래 그랬던 것도 아닌데, 남 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스스로가 한심한 건데도. 그 상반된 감정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괴롭더라구요, 그 괴리감이. 거기서 또 오는 게 스스로가 한심하고 짜증이 나고, 무의미하고. (참여자 7)

2) 꿈과 현실사이의 커다란 괴리

이 범주는 대학생이 되기 전 꿈꿔왔던 삶이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이었음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꿈과 현실사이의 커다란 괴리'의 범주는 '모순된 자유', '밀려나 따돌려진 관계'와 '가정 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세분화되었다.

(1) 모순된 자유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의 자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입학했지만, 대학에 와보니 막상 자유는 마음껏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결국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어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공부,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였다.

>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에서 풀려난 자유가 너무 많았고, 되게 좋은 건 줄만 알았고, 하루종일 자도 누가 뭐라고 사람도 없고, 이런 식이었는데. 대학교는 혼자서 알아서 잘해야 되는 데잖아요. 자유지만 자유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대학교 생활이라는 게 뭔가 로망? 러브? 이런 것도 있어야하는데, 저는 계속 거의 3년 갈 정도로, 그런 야, 놀자 하는 친구도 없었고, 동아리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선배, 언니 하는 것도 없었고, 애인도 없었고, 되게 생활이. 이게 대학 생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1)

> 대학만 가면, 이렇다, 저렇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낭만같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보다 자유로우니까 그런 거에 더 즐거움을 느끼고, 조금은 느끼긴 했었는데... 근데 역시 본질적으로 제 전공, 적성에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도 안 맞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계속 있었고, 다른 안 좋은 일도 겹치면서 확 놔버리게 된거죠... 거기다 이제 공부 그런 것까지 겹치면서. 어차피 대학생활이라고 해도 별 다를 바 없고 똑같이 사람 사는 덴데. (참여자 8)

(2) 밀려나 따돌려진 관계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원만한 대인관계였지만, 쉽게 친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동떨어진 느낌을 받고 필요에 의해서만 참여자와 함께 할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관계 안에 속하지 못한 채 겉돌거나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다.

저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구요, 친구로. 쟤는 이상하다, 이상한 애다, 날라리 양아치다. 여기 왜 왔는지, 도대체 왜 온 건지, 막 이런 식으로. 평균만 된다고 오는 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더라구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 얘네들이 나를 이제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참여자 4)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뭐...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업 듣고, 과제하고...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너무 허무하니까 대학도 다니기 싫더라구요, 때려치고 싶고. 뭐하는 건가 싶고, 돈 들여가면서. (참여자 7)

(3) 가정 내의 현실적 어려움

참여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주변 상황과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특히 가족 내의 불화와 같은 가족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가정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학교 와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 수준은 이거 밖에 머물러 있구.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 거보다 부담감이 컸어요. 또래보다 더 큰 거 같아요. (참여자 2)

엄마, 아빠가 작년에 이혼을 하자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때가 좀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앞으로 안 볼 거면 알아서 하라'고, 이혼을 하든 말든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든 말든,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핸드폰을 끄고 일주일동안 이 곳 저 곳을 막 왔다갔다 했어요. (참여자 3)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자살시도로 몰아세우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1) 궁지에 몰린 듯한 극한 상황

참여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진술하였으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숨막히는 듯한 불안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이 자살을 시도하게 만든다고 진술하였다. 이 범주의 하위범주로는 '거듭되는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과 '답답한 현실에 얽매인 처지'로 나타났다.

(1) 거듭되는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

참여자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맥락적 조건으로 자신의 삶을 절망적으로 이끄는 원인이나 현실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으며, 이런 저런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상황에 우울감과 무력감을 나타냈다.

절망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우울한 기분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몰리는 느낌? 제가 어디로 몰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던져 버리거나 자거나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저를) 쳐버리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목숨을 포기하겠어요. 정말 자기가 느끼기에 끝이어 가지구, 낭떠러지여서 그런 거 아녜요. (참여자 2)

(2) 답답한 현실에 얽매인 처지

참여자들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현실에서 버티기조차 힘들며,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자신을 옭아매어 꼼짝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숨통을 죄어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자신을 얽매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미칠 것 같다는 불안함을 표현했다.

막 숨통을 조이는 듯 하고, 더 답답하고, 그래서 한층 내려와서 복도에서 계속 서있었던 것 같았어요. 계속 뭔가를 겪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숨통을 죄고 있는 것 같은, 뭔가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거추장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되게 그런 감정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진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호흡곤란같이 오고 하니까 정말 나 너무 미치겠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그냥 갑자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진짜 답답하고 진짜 호흡, 숨도 안 쉬어지고 떨리고, 진짜 모르겠다고. (참여자 3)

2) 극단적인 감정 변화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동적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감정을 참을 수 없어 폭발할 것 같고, 더욱 예민해지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 범주는 '쌓였던 감정의 폭발', '이성의 상실'로 세분화 되었다.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획적으로 자살을 준비하기 보다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도화선이나 촉매제로 작용하는 사건이나 상황이 시발점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1) 쌓였던 감정의 폭발

참여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꾹꾹 참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다가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같은 감정으로 내몰리며 자살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됨을 표현했고, 극한 상황까지 몰리면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표현하였다.

쌓이다 폭발하는 거 같아요. 쌓이고 쌓이다가 뭔가 심한 원인이 생기면 그때 폭발해요. 시발점이 돼 가지구 다른 일도 생각이 나구, 산더미처럼 돼 가지구. (참여자 2)

(자살을) 시도 못했다가 쌓이고 쌓였던 그 우울함의 원인 중 하나인 아빠의 폭력이 마지막으로 또 직전에 이제 혼나면서 한 번 딱 맞으니까 탁 폭발을 한 거죠. 끈이 딱 끊어졌다고 해야 하나. 그 극한의 상황에서 뭔가 딱 하나 찌르니까 이제, 바로 터진 거 같아요. (참여자 8)

(2) 이성의 상실

참여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은 계획된 조건 하에서가 아닌 잠재되어진 충동이 어느 순간 홧김에 튀어 나오는 것 같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의 상황이 자살의 충동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술 먹고, 그냥 술 먹고 홧김에 했던 거 같아요, 술 먹고. 술만 먹으면 그런 충동이 맨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나 죽을 거라고 뛰어 들면 애들이 많이 말리고, 친구들이 많이 말리고 그랬는데. 이제 못 말릴 경우도 있었죠. (참여자 4)

홧김에 죽고 싶더라구요, 홧김에. 버티다가 어느 순간 술이라도 먹고 이성의 끈을 딱 놔버리면 폭발하듯이 다 튀어나와 버릴까봐. 그러면 정말 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못 버텨,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가 미쳐서 소리라도 지르고 발광이라도 할 거 같고.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될 거 같고. (참여자 7)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적 조건에서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조건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타인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타났다.

1) 중요한 타인들

참여자들의 자살시도는 평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타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살충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반면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 범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는 사람들'로 세분화 되었다.

(1)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

참여자들은 자신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사람들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살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으며, 참여자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자살충동을 억제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나 싫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내 욕을 많이 들었고, 누가 내 욕하는 거 많이 들었고 내 험담을 많이 들었을텐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좋다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한테 다가와주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여자 4)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오빠가 오히려 연락을 해서 다 얘기해라, 무슨 일 있었냐, 그런 식으로 오빠 쪽에서 접근을 해서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고. 힘든 일 있으면 어따 터놓을 때 없으면 오빠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참여자 8)

(2) 등을 돌리는 사람들

참여자들이 평소에 가장 믿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남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자살을 더욱 부추긴다고 하였다. 즉,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로 실망하게 되고 상처가 되었다.

배신감. 엄마는 보듬어줄 줄 알았는데 채찍질하니까... 기대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힘든 것을 알아줄 거라고) 그 쪽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아요. (참여자 2)

당연히 가족만큼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열 사람이 돌을 던져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취급 안 해주시고, 진짜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여자 4)

2)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살시도에 대한 중재적 조건에서 주변 사람들이 참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현재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자신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접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1) 중요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참여자가 자살을 하여 죽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자신을 잊지만 죽고 나면 남겨질 가족들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족이나 중요한 타인의 입장에서 참여자 자신의 자살을 보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자살에 대한 충동이 들 때에도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게 만들게 하였다.

제가 죽어도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 저를 잊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살한 애들. 잊고 살 때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도 한동안 되게 슬퍼했지만 지금은 그래두 잊고 살아가니까. 근데 가족은, 가족들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참여자 2)

저를 믿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주기도 싫고 제가 말하면 신경쓰실 테니까, 신경쓰게 해드리기도 싫고. 그냥 결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제가 빌빌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제까지 부모님이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으시니까. (참여자 7)

(2) 무의미한 존재라는 비관적인 사고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만 되는 것 같고,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해질 거라는 생각과 다른 이들에게 부담스런 존재라는 생각에 오히려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었고. (참여자 1)

살다보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섯 명이 나를 좋아하고 한 명이 나를 싫어하면, 그 한명한테만 맞추거나 한명한테 잘하면 되는데 다섯 명이 다 나를 싫어하니까,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건지... 많은 생각을 했죠... 부모님도 나를 싫어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 밖에 방법이 없구나. 자기 자식을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다고 하겠어. (참여자 4)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특정하게 인지된 상황에서 현상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을 의미하는데, 자료 분석 결과 '임시방편의 노력'과 '스스로를 추스르기'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났다.

1) 임시방편의 노력

참여자들은 자살에 대한 극단적인 충동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자해가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면에서는 자살시도와 비슷한 감정일지 모르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였으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에서 벗어나고자 잠시나마 다른 곳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반복되는 자해

참여자는 자살시도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중에서 자살에 대한 충동을 자해를 통해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자해로 인해 일단 충동적인 감정이 발산되면 평정 상태로 돌

아와 자살시도의 충동을 줄일 수 있었다.

손목을 막 그었어요. 난도질 하듯이... 아 힘들다, 그래서 멈추고... 멈추고 있다가 이게 평정이 오더라구요. 되게 이상한 게 피를 보니까, 피를 보니까 그래요... 아, 내가 뭐했나 싶고. 그리고 자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다시 일상으로 왔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자해를 많이 했어요. 칼 같은 걸로 손을 긋는다든지, 손목이라기보다는 옷 입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런 데를 하니까. (참여자 8)

(2) 관심의 전환

참여자들은 충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충동적인 생각을 접고자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는 등 다른 곳으로 환기시키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접으려고 노력했으나, 자살 충동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서 이러한 행동과 생각은 충동을 없애기에는 일시적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막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벗어나는 방법으로 내가 이것도 해보고,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생각을 버리려고는 하는데. 진짜 감당하기 되게 힘들어요. (참여자 1)

그래서 자고 싶어요 차라리. 예전엔 멀뚱멀뚱 있었는데 지금은 음악이라도 듣고 안정시키고 잠 오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참여자 2)

2) 스스로를 추스르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가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살의 충동을 조절하려고 하였으며, 자살충동이 떠오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범주는 '자살 충동의 내적 은폐'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자살'로 세분화 되었다.

(1) 자살 충동의 내적 은폐

참여자들은 자살충동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만 조절하면 된다는 생각에 자신의 자살의 충동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억누르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자살충동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였다.

억누를 때는요. 저만 알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뭘, 막 핸드폰 만지면서 얘기하는데 억누를라고... 억누를 때는 억지로 문자를 키키키 보내야 되고. 되게 숨이 막혀요. 그냥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데 마땅히 털어 놓을 사람 없고 나 혼자 해결해야하는데 버겁고 차라리 이게 외부적인 일이었으면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해결해 나갈텐데,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내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르고 있어요. 어떻게 방도도 없으니까. (참여자 2)

너무 저 다독이기가 바빠서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걸 다 억누르고 꾹꾹한 채로... 제가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심적 소모가 좀 크더라구요, 그게. (참여자 7)

(2)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 자살

참여자들은 자살의 충동과 같은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자 했다. 즉,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살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상황과 자신의 자살시도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였다.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계속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해나가는 방법을 해결해나가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겠는데. (참여자 3)

분명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역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수도 있고 진짜 더 슬퍼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 엎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짜 혼자 스스로 이렇게 죽는 건 아닌 거 같아서. (참여자 5)

6.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만의 상처가 된 트라우마', '삶과 죽음 사이의 갈등', '성숙해진 나'로 나타났다.

1) 나만의 상처가 된 트라우마

참여자들은 자살시도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치부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었다는 생각에 수치감을 느끼고, 자존감은 더 떨어지면서 회복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한편, 자살시도가 자신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겨져 무의식적으로 감춰져 있음을 진술하였다. 이 범주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수치심', '회복하기 어려운 자존감', '조각난 기억으로 남은 자살'의 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1) 스스로에게 부과한 수치심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후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자신의 모습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로 인해 스스로의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살시도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기 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자살시도로 인해 얻은 것은 없고 비참함만이 남게 되어 수치감을 느꼈다.

> 멍청했다고 해야할 지, 좀... 무모했고, 내가 한 순간에 진짜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참여자 5)

> 제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거 같아요. 그 때 내가, 자살을 시도했었고,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자체가 뭔가 부끄럽고 치욕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여자 8)

(2) 회복하기 어려운 자존감

참여자들은 수치감이 심해지면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나 다행감이 아니라 또 다시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시작이라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자존감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다시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그렇다고 또 시도할 의욕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7)

> 저는 지금도 자존감은 없어요. 애당초 저를 사랑한다는 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없었던 상태였고. (참여자 8)

(3) 조각난 기억으로 남은 자살

참여자들은 자살시도는 충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차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편적인 조각들만 남게 되었고, 무덤덤한 느낌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듯이 얘기하게 되었다.

> 나름 충격적인 일이고 당연히 저한테 기억이 남아야 될 만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는지, 무엇이 시발점이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남아있어요. (참여자 1)

> 왜 내가 그런 상황이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뭔가 조리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트라우라마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자살까지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도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 때 내가 좀 아팠었고, 치료 받았었다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고. (참여자 8)

2) 삶과 죽음사이의 갈등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후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과 함께 또 다시 힘든 상황이 오거나 한계에 부딪치면 자살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다시 되돌아갈까가 걱정이 되며,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됨을 표현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과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살 충동'으로 세분화 되었다.

(1) 죽음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후에 자살을 시도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자살시도가 성공했다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충격과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고, 만약에 자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앞으로는 자살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

> 그냥 좀 무섭더라구요. 무섭고, 두렵고. 내가 자살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느 순간에 만약에 죽는다고 치면, 그냥 죽는다고 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데로 갔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등에서 갑자기 막 식은땀 같이 날 때도 있고. (참여자 3)

>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게 죽으면 끝인데, 병신이 될까봐 그게 무섭더라구요. 죽어야 끝나는 건데 병신이 돼버리면 평생 그 병신 된 몸하고 고통안고 살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구요. (참여자 4)

(2)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살 충동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자살의 충동은 늘 안고

살아가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되면 자살에 대한 충동이 습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라 충동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불안했다.

근래에도 그런 충동이 있기는 하죠,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라 그런 게 또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이. 그런 식으로 습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진짜 엄청나죠.(참여자 1)

개강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렵기까지 해요, 심지어 또 그렇게 될까봐, 또 그런 식으로 될까봐 두려운데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 불안해요. (참여자 7)

3) 성숙해진 나

참여자들은 자살시도 후에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살시도의 경험으로 인해 좀 더 어른이 되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하였다. 이 범주는 '튼튼하게 다져질 거라는 희망'과 '시간만이 해결책'으로 세분화 되었다.

(1) 튼튼하게 다져질 거라는 희망

참여자들은 아직까지 자살시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스스로 성장하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자살시도로 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밝고 희망차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져지는 거겠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번 겪고, 대학교에서 사회 나갈 때 한 번씩 겪으면서 그런 인간관계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랑 그런 것, 어떻게 대처하는 거를 배워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다 배워가니까. (참여자 4)

내가 분명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변하지,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겠냐고.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도 생기고. (참여자 5)

(2) 시간만이 해결책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지금의 시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살시도로 이끌 만큼 힘든 상황이 평생 갈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어도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졸업하면 달라질 거예요. 후회는 남겠지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대학생이 아니고, 이미 취직 걱정이 더 되겠지만, 더 이상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더 이상 저를 이미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각 안할 수도 있겠죠. (참여자 1)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진짜 저는 그 때는 시간이 안 해결해줄 줄 알았어요. 그냥 평생 갈 줄 알았는데 평생은 안 가더라구요. 그런 거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참여자 5)

7. 가설적 관계진술

근거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들을 비교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맥락적 조건이나 중재적 조건에 속하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및 결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일수록 스스로를 추스르기를 통해 성숙한 나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둘째,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일수록 일시적인 노력을 거쳐 삶과 죽음사이에서 갈등하고, 자신만의 상처가 된 트라우마의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 궁지에 몰린 듯한 극한 상황이 많고,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많을수록 일시적인 노력을 거쳐 삶과 죽음사이에서 갈등하고, 자신만의 상처가 된 트라우마의 형태가 될 것이다.

넷째, 궁지에 몰린 듯한 극한 상황이 적고,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적을수록 스스로를 추스르기를 통해 성숙한 나의 형태가 될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자살시도 경험에서 나타난 중심현상인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주변 상황이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참여자의 심정을 나타내주며, 자살만이 고통스러운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시도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진정한 자유나 탈출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http://dx.doi.org/10.4040/jkan.2015.45.3.397

러한 연구 결과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의 치명적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가능한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며[19], 자살시도를 했거나 자살을 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슬프고, 지쳐서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거나 끔찍한 곤경에 빠져 도저히 피할 곳이 없고,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극심한 괴로움에서 유일한 탈출구라고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다[20]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심리적 부적응 상태인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5]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자살시도와 관련된 공통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등 심리적인 상태나 사회적 지지 등이 있지만[9], 연령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청소년기의 경우 하나의 요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단편적인 스트레스 유발사건에 대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경향[21,22]이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들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살이 일어나며,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보다는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을 시도[9]하는 차이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후기이면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발달단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정과 학교나 사회로부터 관심과 기대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의존적이며 타율적인 생활을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책임감과 함께 자율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적 틀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므로, 발달단계상의 전환기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문제로 정신건강의 문제와 자살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3].

본 연구 결과, 참여자의 자살시도의 원인적 조건으로 대인관계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등 내적인 요소로 인한 감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대학 입학 후 일시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상실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면서 일시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흔들리게 되고, 갑자기 생긴 자율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독립과 의존의 갈등을 느낀다고 보고한 Kang[4]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연구한 Jo와 Lee[23]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성취지향주의나 물질만능주의, 가치체계의 붕괴 가족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스트레스를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더 나아가 개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심리적인 내적 변인이 대학생의 자살시도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자유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으며[20],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24]나 대학생들이 가족을 떠나서 생활하고 교우관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대학생의 자살사고는 대학생활과 사회적 압박이라는 독특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25,26]이라고 생각된다. 즉, 고등학생 때의 짜여진 생활과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면서 또 다른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스스로를 조율하면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대학생의 자살시도와 관련된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자살시도 후에도 참여자들은 자살시도는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 책임감 없는 행동이고 자살시도로 인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양가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감추고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때의 감정이나 순간 순간의 상황만이 단편적으로 생각날 뿐이며, 자세한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인 오명은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하며, 스스로 느끼는 수치심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생존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민감해하고 의논하기를 꺼려한다는 보고[14]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충동적으로 자살시도를 생각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살시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에서 나타난 특징은 외부 상황이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나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인 문제와 자아정체성의 흔들림 등 내적인 측면의 원인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상 가족관계의 중요성은 성인기로의 독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생들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뢰를 가진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살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가족 결속력 및 사회관계망의 확대와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Jo와 Lee[23]의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 자살의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된 생명 존중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죽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 자살하지 않아야 할 이유 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27].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자살시도의 원인 및 과정에서 청소년과 성인기의 사이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의 특성과 함께 대학생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나타났으므로 그 특성과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고려한 내용이 대학생의 자발예방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을 파악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가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의 특징 및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emir 등[28]은 멘토 프로그램이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내적통제위를 증가시킴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대학생의 자살시도의 특성과 자살시도의 원인적 요인들로 나타난 내면적인 측면과 관련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즉, 대학생활 동안의 스트레스나 부적응과 관련된 외부적인 상황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재적인 힘을 키우고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한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선별하여, 자살시도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됨을 고려하여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대학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자살시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한 질적 연구이다. 대학생의 자살시도 과정에서 외부적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자살시도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한 단계 성숙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자살시도의 원인적 요인들을 고려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자살시도 재발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2 annual report on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ternet]. Daejeon: Author; 2013 [cited 2014 August 1].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bSeq=2302&aSeq=30862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exp&sTxt=%EC%9E%90%EC%82%B4.
2.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Internet]. Daejeon: Author; 2013 [cited 2014 August 1].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2.
3. Kim JJ.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e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9;32:413-437.
4. Kang LY. A case study on college student suicide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2008;10:2-11.
5. Sohn JN.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7;16(3):267-275.
6. Cooper J, Kapur N, Webb R, Lawlor M, Guthrie E, Mackway-Jones K, et al. Suicide after deliberate self-harm: A 4-year cohor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2005;162(2):297-303. http://dx.doi.org/10.1176/appi.ajp.162.2.297
7. Nam YO.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11):283-304.
8. Kang SH, Moon ES, Cha M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life event stress,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comparison of boy and girl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1;25(2):277-293.
9. Kim HC.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suicide and suicidal typ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006;12(1):15-33.
10. Park JY, Kim JK.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 suicide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4;21(1):167-189.
11. Kim SS. Experience of sufferings of suicide-attempted women: A parse research method study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12. Im MY, Kim YJ.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uicide attempts i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41(1):61-71. http://dx.doi.org/10.4040/jkan.2011.41.1.61

13. Jo KH, Kim Y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storation experience for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38(2):258-269. http://dx.doi.org/10.4040/jkan.2008.38.2.258
14. Kim H. Survival experiences of those who repetitively attempted suicide: "Getting out of the swamp"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0.
15. Yoon MS, Chae WS. The process of schizophrenics' overcoming after attempted suicid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9;33:218-256.
16. Yoon MS, Choi SY.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uicide attempts among alcoholics: Living with dual restric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2;40(4):27-56.
17. Strauss AL, Corbin JM.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0.
18. Guba EG, Lincoln YS.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 NK, Lincoln YS, editor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1994. p. 105-117.
19. Quinnett PG. Suicide: The forever decision. Lee HS, Yook SP, translator. New York, NY: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2.
20. Choi YJ.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protective factors in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12;23(3):77-104.
21. Kim JR, Kim HS.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4;34(2):310-333.
22. Choi MK, Seo JM.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suicide: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41(4):539-549. http://dx.doi.org/10.4040/jkan.2011.41.4.539
23. Jo KH, Lee HJ. A content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cause and intervention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13;22:105-133.
24. Park JY.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0;41(1):345-375.
25. Arria AM, O'Grady KE, Caldeira KM, Vincent KB, Wilcox HC, Wish ED. Suicide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 multivariate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009;13(3):230-246. http://dx.doi.org/10.1080/13811110903044351
26. Choi MS. A study of the suicide on campu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07;28:1-49.
27. Lee JI, Oh SG. The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program" on suicidal risk and suicidal attitudes of adolescent. Forum for Youth Culture. 2014;37:82-101.
28. Demir S, Demir SG, Bulut H, Hisar F. Effect of mentoring program on ways of coping with stress and locus of control for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2014;8(4):254-260. http://dx.doi.org/10.1016/j.anr.2014.10.004